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사도회장: 안민철 미카엘
연령회장: 홍익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팩 스: 703-968-3013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이 메 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로마 5,5) 희망의 순례자들

동중부 연합 올드레아



지난 11월 16일 오후 4시에 본당 및 친교실에서 동중부 연합 올드레아 미사 및 정기 총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꾸르실료 지도 신부님이신 MD 박문성 마태오 신부님과 배하정 다니엘 주임 신부님, 리치몬드 김택민 마태오 신부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각 본당에서 알링턴 93명, 워싱턴 51명, 리치몬드 7명, 볼티모어 7명, 에피파니 (조지타운) 7명의 꾸리실리스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시작 기도와 더불어 각 본당 간사들의 현황 보고와 새로운 주간 (알링턴 본당, 서경원 마르티노)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2025년 7월에 남성 3박4일 주말 교육을 다녀온 새로운 꾸리실리스타분들의 즐거운 장기자랑 공연이 있었습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그리스도 왕직의 진정한 의미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백성을 이끌 영도자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라는 죄명 패가 보여 주듯이, 그분의 왕권은 십자가 주위에서 펼쳐집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세례 때에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루카 3,22)라는 명패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히 반대의 의미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팻말뿐만 아니라, 형식에서도 예수님의 왕직이 드러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의 즉위식에는 늘 두 명의 증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루카 9,28-36), 예수님의 부활 사화에서는 눈부시게 차려입은 남자 둘이 증인으로 등장합니다(루카 24,4). 그러나 골고타의 즉위식에는 단지 천박한 강도 둘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시시한 즉위식에 오르실 왕은 끝까지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그러나 이 초라한 즉위식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두 강도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의 왕직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 주십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적들과 죄인들에게 용서를 베푸는 직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의 왕권을 통해, 뉘우치는 강도를 아버지의 나라로 받아들이시고, 뉘우치지 않는 완강한 적들도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하시며 용서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은 용서와 화해를 위한 봉사의 직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다른 이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금주의 교리 상식]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전례력으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축일명대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금이심을 기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정치권력으로 백성을 억누르는 임금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까지 희생하며 백성을 섬기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실현하셨습니다.

1925년 비오 11세 교황께서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정하셨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1985년부터 해마다 연중 시기의 마지막 주일을 ‘성서 주간’으로 정하여, 신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성경을 더욱 가까이하고 자주 읽으며 묵상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말씀은 그리스도인 생활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수녀님 강의

지난 11월 9일 오후 3시 본당 친교실에서 신앙인 부모님들을 위한 안 다니엘 수녀님의 특별 초청 강연이 있었습니다. 수녀님의 강의 주제는 “미사와 신앙 교육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주일학교 학부모들과 봉사자 및 신자들로 강의실을 가득 채웠으며, 미사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키워가기 위해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 2차 헌금 안내

- 이번 주일에는 인류 발전 캠페인 (Campaign For Human Development)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중 34주간 모임 안내

- 11월 23일 (일) :
전신자 연도 대회 (오전 11시 30분)
만화 영화 상영 (오후 3시): The King of Kings
아버이 성서 모임 종강 미사 (저녁 5시)

3. 대림 1주일 모임 안내

- 11월 28일 (금) : 라파엘 Journey Home
- 11월 30일 (일) : 루가회 월례 모임 (오전 11시 30분)

4. 라파엘 Journey Home

- 일시 : 11월 28일 (금) 저녁 7시 30분 - 오전 12시
- 장소 : 친교실
- 대상 : 18세 이상의 청년들
- 방학을 맞아 집으로 본당으로 돌아오는 대학생들과 함께 찬양과 기도로 친교를 나누는 Journey Home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든 청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문의 : 이충원 베드로 703-507-9936

5.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동전 모으기 저금통

-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 동전 모으기 저금통을 대림 제 1주일 (11월 30일)부터 배부합니다.
- 대림 시기 동안 동전을 모아 주님 공헌 대축일 (1월 4일)에 봉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 12월 봉성체

- 일시 : 12월 5일(금), 12일(금) 오전 9시부터
- 문의 : 정문기 윌리엄 703-598-3316

7. 레지오 마리아 연차 총 친목회

- 일시 : 12월 7일 (일) 오후 5시 30분, 친교실
- 대상 : 행동 단원 및 협조 단원
- 문의 : 배성훈 디모테오 703-507-2492

8.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의무 대축일 미사 안내

- 일시 : 12월 8일(월)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도 의무 대축일입니다. 미사 시간 참고하시어 꼭 미사 참례 하시길 바랍니다.

9. 파티마 세계 사도직 봉헌식

- 봉헌식 : 12월 8일 (월), 저녁 7시 30분 (성전)
- 올해도 성모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봉헌식이 있습니다. 성모님께 자신과 가정을 봉헌하고 어머니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청해야 할 것입니다. 봉헌식으로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 신앙인들이 뜨겁게 변화될 것이고, 성모님을 통하여 예수님과 일치를 이루시는 삶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봉헌에 참여하여 함께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서로 격려하며 함께 합시다!

10. 새신자 첫 고해

- 일시 : 12월 13일(토) 오후 4시 30분 (하상관 110호)
- 대부모님들께서는 꼭 함께 해 주세요.
- 문의 : 선교부장 빈은숙 스텔라 412-523-1792

11. 12월 유아 세례

- 일시 : 12월 13일 (토) 오후 2시
-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2025년 꾸르실료 송년 울뜨레아

- 일시 : 12월 14일 (일) 오후 5시 30분
- 장소 : 친교실
- 꾸르실리스타들 송년의 밤에 모두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13. 성탄 판공 성사 안내

- 일시 : 12월 16일 (화)
- 판공 성사 : 오후 2시-5시, 저녁 미사후-저녁 9시
- 고해성사 준비를 위한 양심 성찰은 개인적으로 하신 후 고해성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님과 화해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준비해 주세요.

14. 사목 임원 회의

- 일시 : 12월 17일 (수) 오후 6시
- 장소 : 친교실
- 22대 사목 임원 회의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해 주신 사목 임원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15. 대림 특강 안내

- 아기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 시기를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대림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신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12월 19일 (금) 저녁 7시 30분 미사 후
- 강사 : 이상훈 안토니오 신부님

16. CYO 겨울 피정

- 일시 : 12월 19일 (금) -21일 (일)
- 장소 : Camp Highroad, Middleburg, VA
- CYO 학생들이 겨울 피정을 갑니다. 피정하게 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 2026년 매일 미사 책 / 제대초 봉헌

- 2026년 개인이 사용할 매일 미사 책 신청을 성물 부에서 받습니다.
- 1년 동안 성당에서 사용하게 될 제대초, 제병, 제주 봉헌을 받습니다. 주님 제단을 밝힐 제대초와 제병, 제주를 봉헌하실 분들은 성물부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성탄 제대 꽃 봉헌 접수

- 본당 입구에서 제대 꽃 봉헌 접수를 받습니다.
- 문의 : 제대회장 유보나 571-337-7198
- 봉헌해 주시는 모든 봉헌금은 초와 제병, 제주 구입 및 성당에서 필요로 하는 제대 꽃, 성물 구입 등에 사용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9. 교황님 축복장 찾아가세요

- 지난번 레오 교황님 축복장을 신청하신 분들께서는 8시, 10시, 2시 미사 후에 성당 로비에서 찾아가 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영성체 후 감실에 인사해야 하나요?

- 우리는 성체를 영할때 행렬을 지어 나와 손이나 입으로 영성체를 하고 자리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종종 영성체 직후 제대나 감실을 향해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신자들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경을 표현하는 의도는 좋지만 사실 성체를 모신 이 후에는 이미 주님이 내안에 계시기에 굳이 감실에 인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 또한 영성체 후에 십자성호를 긋는 것은 어떨까요? 미사라는 전례 전체를 볼때 이미 미사 도입부에 성호를 그었고 파견 예식때 다시 성호를 그을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영성체 후에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침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5년 11월 16일 (연중 제 33주일)

봉헌금	-----	\$7,357.00
교무금	-----	\$11,490.00
교무금 (신용카드)	-----	\$6,120.00
2차 헌금	-----	\$6,114.00
감사 헌금	-----	\$1,230.00
온라인 봉헌	-----	\$2,570.00
합계	-----	\$34,881.00

KACM TV 하이라이트

성 정바로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2025년 11월 27일(목) 오후 5시 - 6시
2025년 11월 28일(금) 저녁 8시 - 9시
2025년 11월 30일(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미사강론
2. 가톨릭 뉴스
3. 영상교리: '대림시기의 의미'
4. 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의 대림시기 특별강좌

교중미사 예물봉헌

11/23 다음주 버크 3반

11/30 다음주 버크 4반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